

雲門

불기 2562년
겨울호
통권 제147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운문의 끝자락이 꽃구름으로 장엄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_0_ / 대교과 도행
- ☺ 헤어지는 아쉬움 뒤 또다른 만남으로……. 도량은 늘 짝 찬 부처님 회상 ^^ / 대교과 불수
- ☺ 금당 가미솔 아궁이의 장작불 열기가 겨울철 우리들의 佛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 사교과 선주
- ☺ 겨울……. 한 철이나 남았거늘 벌써 화엄이 기다려진다. / 사교과 도현下
- ☺ 항아리 속 배추김치 썰면서 대종스님 발우 공양 맛있게 드시길 제 마음 정성을 다합니다. / 사집과 영산
- ☺ 추운 겨울, 우리들의 뜨거운 산심으로 파이팅!!! / 사집과 선덕
- ☺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스게~~ / 사미니과 윤담
- ☺ 묵묵히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목련에게 무정설법을 들으면서 치문의 겨울을 잘 나길 발원합니다. / 사미니과 영림
- ☺ 벗어나려 하지 말고 자유로워져라! 일체 인연 모두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 사미니과 형주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비구 평성
06	교수논단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 고찰 ① 일진
10	풍경소리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백일간의 수행' 편집부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회주스님과 함께한 중국 순례길 동우
16	확인논단	염불의 대중화와 포교에 관한 고찰 ② 범성
20	선배탐방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명상을 하라 진오
24	운문만행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① 지안
28	인도성지순례	인도 순례기 진오
32	외부기고	고단하고 고독한 삶, 그 길의 위안거리들 상규학
36	想	눈 속의 龍梅 범운
37	특별기고	쇠목 소리, 세상을 울리다 - 『25+10=X』를 읽고 도원
41	깨달음으로 가는 길	몽중유(夢中遊) 편집부
42	수행의 두레박	오백나한전 꽃밭에서 100일간의 수행 지선
44	강원편지	미래의 운문인들에게 보내는 글 진유
46	차레법문	명행족(明行足) - '다름을 인정하는 밝은 마음' 정현
48	운문, 운문인	수행, 깊어가다 편집부
50	이 한 권의 책	참된 나를 찾아 - <자경문>을 읽고 상호
52	운문논평	회합하는 운문인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미소 하나, 좋은 말 한 마디 이는 모두가 선한 인연 맺는 큰 보시 편집부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비구

명성 / 운문사 회주



오늘은 『밀린다왕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린다왕은 기원전 2세기 후반 서북인도를 침입해서 통치하던 그리스인으로서 메난드로스라고도 합니다. 이 밀린다왕과 불교 수행자였던 나가세나 존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담은 경전을 우리는 『밀린다왕문경』이라고 합니다.

밀린다왕의 질문에 깔린 논리체계는 현대인의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와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밀린다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재생한 자와 사멸한 자는 동일합니까? 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린다왕에게는 사람이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하는 윤회의 개념이 몹시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나가세나 존자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도나 불교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궁금증을 묻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나가세나 존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대왕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다고 합니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이시여,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밤중에 타는 불꽃과 새벽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초저녁의 불꽃과 밤중의 불꽃과 새벽의 불꽃은 각각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은 똑같은 등불에서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것처럼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최종단계의 의식에 포섭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내생의 나는 ‘불일불이—not 不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라는 것이 나가세나 존자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로 어릴 적의 나와 어른이 되어 있는 지금의 나, 우유와 버터의 비유를 들어 나가세나 존자는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성을 체득하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겠지만 생멸심이 남아 있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 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 고찰 ①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목 차

I. 서론

II. 나한신앙의 유래와 특징

1. 나한신앙의 유래

2. 나한신앙의 특징

III. 운문사의 나한신앙

1. 운문사의 창건 유래

2. 오백전과 오백나한 기도 유래

3. 오백전 오백나한 백일기도

4. 운문사 오백나한은 곧 운문사 학인

5. 사리암의 유래와 나한신앙

IV. 결론

아라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① (번뇌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ārakā),
- ② (번뇌라는) 적(敵, ari)과 재생이라는 바퀴살(ara)을 부수어버렸기 때문에
- ③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 ④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¹⁾

이러한 이유로 한역에서 아라한은 살적殺賊, 응공應供, 불생不生 등으로 번역하는데, 즉 수행을 방해하는 도적(번뇌, 망상)을 없앤다는 뜻에서 살적이라 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덕을 다 갖추어 충분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응공이라 하며, 영원히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윤회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라 한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 아라한은 회화화되거나, 아니면 기복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나한신앙이 꽃을 피운 중국에서는 도교와 결합되어 신선처럼 묘사되거나, 선종의 조사가 나한으로 모셔지기도 했다. 신라 김 화상으로 알려진 무상無相 선사가 중국 500나한 중 455번째로 모셔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한도량으로는 청도 운문사, 강화 보문사, 완주 원동사, 팔공산 거조암 등이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의 특징을 고찰하고, 오늘날 나한신앙의 바람직한 내용과 형식을 논의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서론

나한羅漢은 팔리어 arahant(Sk. arhant)의 음사어인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이다. 아라한은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십대명호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모든 수행자의 이상적인 상으로서 인식되었다. 5세기경에 활약한 붓다고사(Buddhaghosa)는

II. 나한신앙의 유래와 특징

1. 나한신앙의 유래

초기 및 부파불교에서 수행자는 수행을 통한 아라한과 성취를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불멸 후 다

양한 이야기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아라한 역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승이 흥기할 무렵의 상좌부에서 전하는 문헌 가운데 밀린다왕문경(Milindapañha)에는 아라한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전한다. 그것은 아라한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²⁾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라한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신앙의 대상이 된 아라한은 그 수가 정해져 있는데, 16나한과 500나한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 1200 나한도 언급된다.

16나한 신앙은 현장 스님이 서기 645년에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題密多羅所說法住記』(이하 법주기)에 기인한다.³⁾ 부처님 열반 후 800년경에 난제밀다라難題密多羅가 쓴 『법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16인의 나한에게 불멸 이후에도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며 각 처소에서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촉을 내린다.⁴⁾ 이들은 모두 삼명三明, 육통六通, 팔해탈八解脫의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삼계의 오탁五濁에 물들지 않는다.⁵⁾

『법주기』에서 언급하는 16아라한과 권속과 그 거주처는 다음과 같다.⁶⁾

16아라한 이름		권속 아라한수	거주처
1	賓度羅跋囉情闍 (Pinḍola-bharadvāja)	1,000	西瞿陀尼洲
2	迦語迦伐蹉 (Kanaka-vatsa)	500	迦濕彌羅國
3	迦語迦跋釐醯闍 (Kanaka-paridhvaja)	800	東勝身洲
4	蘇那陀(Subinda)	700	北俱盧洲
5	詰距羅(Nakula)	800	南瞻部洲
6	跋陀羅(Bhadra)	900	耽沒羅洲
7	迦理迦(Kālika)	1,000	僧伽藍洲
8	伐闍羅弗多羅(Vajraputra)	1,100	鉢刺鞞洲
9	成博迦(Śvapāka)	900	香醉山中
10	半訶迦(Panthaka)	1,300	三十三天
11	囉怛羅(Rāhula)	1,100	畢利羅瞿洲
12	那伽犀那(Nāgasena)	1,200	半度波山
13	因那陀(Ingada)	1,300	廣脇山中
14	伐那婆斯(Vanavāsi)	1,400	可住山中
15	阿氏多(Ajita)	1,500	鷲峯山中
16	注荼半訶迦 (Cūḍapanthaka)	1,600	持軸山中

〈표 1〉 16아라한의 이름, 권속과 거주

이들 아라한들은 학문적으로는 경·율·론

1) 붓다고사 스님 지음, 대림 스님 옮김, 『청정도론 1』(울산 : 초기불전연구원, 2005) pp.479~480의 내용을 참조해서 다소 문장을 다듬었다.
 2) Milin, 266, Isaline Blew Horner, 『The Early Buddhist Theory of Man Perfected』, New Delhi : Oriental Books Reprint Corporation, 1979, p.183 에서 재인용함.
 3) 정병삼,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한신앙』, 나한 2003, p.155.
 4) 『大阿羅漢難題密多羅所說法住記』(大正藏18, 12c~13a)
 5) 위의 책, 13a, “如是十六大阿羅漢 一切皆具三明六通八解脫等無量功德”
 6) 위의 책, 13a-b. 아라한들의 산스크리트어 표기는 에띠엔 라모트, 호진 옮김, 『인도불교사 2』(서울 : 시공사, 2006) p.495의 내용을 참조했다. 아라한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문헌만 간단히 소개하면, 법주기 외에 『증일아함경』, 『미륵학생경』, 『사리불문경』, 『만주슈리 물라갈빠』, 『입대승론』이 있다.

삼장은 물론 외도의 경전에도 능통했고, 신통력도 지니고 있으며, 중생들을 위해서는 참된 복전이 되었다.⁷⁾ 스님들을 위하여 큰 공양법회나 무차대회를 열거나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면 16나한과 권속들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하여 공양을 받으며 시주자에게 큰 과보를 얻도록 하였다.⁸⁾

이 과정에서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무량한 복을 짓게 된다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16나한은 단순한 아라한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나한신앙이 폭넓게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대 나한신앙과 관련해서 그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편에 소개되고 있다.

후당 동광원년 계미後唐 同光元年 癸未 본조 태조本朝 太祖 즉위 6년에 唐나라로 보냈던 사신 윤철尹質이 가지고 온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은 지금 북송산 신평사北嶺山 神光寺에 있다.⁹⁾

고려 태조 6년이면 923년이다. 신평사에 오백

나한상이 봉안되었다는 것은 나한이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제규는 고려사 문종 7년 기록에 신평사에서 나한재羅漢齋를 설치한 것은 나한이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⁰⁾

2. 나한신앙의 특징

나한전에 모셔진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16나한이며, 많게는 500나한을 모시기도 하는데, 그 전각을 응진전이라고 한다. 또다른 표현으로는 오백전, 팔상전, 독성각, 천태각이라고도 한다. 독성각, 천태각, 응진전, 나한전은 같은 성격의 전각이며, 팔상전은 석가모니 일대기를 팔상성도로 분류하여 그림이나 조각으로 모신 전각인데 여기에도 아라한을 모신 경우가 있다. 독성각은 나반 존자를 모신 전각으로, 우리나라의 나한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¹¹⁾

16나한, 18나한, 500나한과 같은 존재들은 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이다. 이들 아라한의 숫자는 처음엔 4명이었던가, 뒤에 8명, 16명, 18명으로 증가되었다.¹²⁾

7) 위의 책.

8) 위의 책, p.13b.

9) 『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 원문의 번역은 鄺齊齋, 「淸州 思 惱寺址와 高麗後期 羅漢信仰의 展開」, 온지논총 제24집 (2010) p.217에서 재인용함.

10) 정제규, 앞의 논문, p.127.

11) 강향숙은 「독성각의 나반 존자와 빈두로 존자와의 관계 재고」, 『인도연구』 제19권 제2호, 2014의 논문에서 독성각의 주인공인 나반 존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빈두로 존자와는 관계가 없고, 16나한의 특징을 집약한 존재이며, 대승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 에디엔 라모트, 호진 옮김, 앞의 책.

1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결집의 경우 가섭 존자를 상수로 하여 500아라한이 모여 결집을 했다. 그리고 쿠산왕조 카니시카왕대에는 설일체유부 소속 500비구가 모여 결집을 행하였다.

나한상도 500나한에서 16나한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변화 형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법을 수호하는 아라한이란 개념은 아마도 불멸 후 형성된 몇 가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란 결집과 관련된 이야기¹³⁾, 수기와 관련된 이야기¹⁴⁾, 미래불과 관련된 이야기¹⁵⁾ 등이다.

나한상 종류	500나한 ⇨ 500, 16나한 병행 ⇨ 16나한
시대	고려시대 ⇨ 조선전기 ⇨ 조선후기
신앙의 주체	국가 ⇨ 개인

인간의 성냄과 웃음, 때로는 욕구마저도 긍정 하는 나한의 모습에는 원초적인 양재초복攘災招福의 마음이 깃들여 있으며, 이런 민중들의 절절한 염원을 감지하고 받아주는 것이 나한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표 2〉 나한신앙의 변화과정

결국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한신앙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한신앙은 본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신앙되었다는 특징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그런 만큼, 나한신앙은 정법의 수호나 중생구제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 ① 국가적으로 신앙하는 존재로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② 임금의 장수를 기원
- ③ 기우제를 위해

(다음 호에 계속)

그런데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송유억불 정책으로 나한신앙의 국가적 중요성이 없어지고, 사찰의 중심이 되었던 나한전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고, 나한도나

14) 『妙法蓮華經』, 『五百弟子授記品』, 大正藏4에는 1,200아라한이 수기를 받는 장면과 500아라한이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爾時千二百阿羅漢，心自在者，作是念：我等歡喜，得未曾有。若世尊各見授記，如餘大弟子者，不亦快乎”(p.28b)；“爾時五百阿羅漢於佛前得受記，歡喜踴躍，即從座起，到於佛前，頭面禮足”(p.29a)

15) 에띠엔 라모트, 호진 옮김, 앞의 책, p.494, “마이뜨레아가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그들은 마침내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주기(大正藏18, 14c)에서는 “이 선근의 힘으로 미륵여래가 정각을 이룰 때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간의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붓다의 3번째 모임에서, 평온하고 믿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생활의 법을 버린 뒤 출가해서 집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성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그 때 이전에 세운 원력에 의해 열반을 얻게 된다.”(번역은 에띠엔 라모트, 호진 옮김, 앞의 책, pp.503~504의 내용을 전체함)

16) 강항숙, 앞의 논문, p.124에서 김희경, 『朝鮮後期 羅漢像 研究』(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p.16~17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요약함.

17) 강항숙, 앞의 논문, p.125 참조.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백일간의 수행’

기도하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크나큰 자비



회주스님과 함께한 중국 순례길

동우 / 운문사승가대학 부교수



화엄반스님들이 인도로 졸업여행을 떠나고 맞이한 가을 휴강, 회주스님을 모시고 어른스님들과 대학원 스님들 총 17명은 중국 순례길에 올랐다. 구화산과 영산대불을 주요일정으로 하는 5박 6일의 여정이었다. 개인적으로 회주스님과 함께하는 첫 해외 나들이인 셈이다.

‘中國’이라는 말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대륙의 자부심이 깔려 있는 말이니만큼 갈 때마다 그 규모에 압도당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리며 거대한 땅으로 향해 본다.

마치 휴가철인 양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김해공항을 떠나 처음 도착한 곳은 남경이었다. 한국의 제법 쌀쌀한 날씨 탓에 겹겹이 입고 온 옷들이 무겁게 느껴질 만큼 남경의 바람은 훈훈하였다. 세련된 현대적인 도시풍의 남경이 좀 낯설다.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는 한결같이 가지가 세 가닥으로 우람하게 뻗어 있다. 손문의 삼민주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사물과 사상을 조화시키는 정신은 여전하구나 싶다.

남경에서 강력 추천을 받아서 방문한 주원周圍박물관은 개인소장품으로 만든 사립박물관으로서 중국 최대 규모라고 한다. 주씨 일가 5대가 수집한 총 6287점의 고대문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단 하나만 전시해 놓아도 대단하다 할 기기묘묘한 작품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536미터의 불도천불랑佛道千佛廊은 스쳐 지나가는 것만도 멀고 많은 부처님의 숲이다.

“자, 여기 봐요. 부처님들이 전부 미소짓고 있지요. 미소짓지 않는 부처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다 함께 미~소 합시다.”

들어자마자 훔훔한 부처님들 배경으로 회주스님의 말씀 따라 미~소지며 단체사진 한 컷. 아침에 한국을 떠나와 저녁에 중국의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하루 해가 저문다.

구화산, 김교각 지장왕보살님

구화산 가는 길은 남경의 도시적인 분위기와 달리, 울퉁불퉁한 도로에 시골 풍경들이 이어졌다. 날씨가 화창하다.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가 밤새 비가 오고 좋지 않던 날씨가 우리 일행이 도착할 무렵인 '11시 20분'이 되자 맑아졌다고며 법력을 찬탄한다. 11시 20분, 그 이후 모든 일정 끝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화창했다. 누군가의 법력으로...

신라 성덕왕의 큰아들로 태어나 24세에 출가하여 당나라로 들어와 75년을 이 구화산에서 수행하여 육신불로 남아 지장왕보살님으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의 행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구화산이다. 99세에 열반하신 스님을 기리며 조성된 99미터의 지장왕보살님상은 구화산 대원문화원에 모셔져 있었다. 친견하기 위해서 아득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힘드셔서 어쩌나 하는 염려에 “내가 왜 못가요?”라며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회주스님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지장왕보살님의 눈빛과 점점 가까워진다. 멀리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 웅장함과 서늘한 눈매에 나는 압도당했다. 말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마냥 예경하고픈 마음만이 오롯하다. 계단을 거뜬하게 완주하신 회주스님께서 직접 축원을 하셨다. 운문사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삼고축까지 해 마치시는 회주스님의 까끌까끌한 음성에 가슴이 몽클하여 주책없이 눈시울을 적셨다. 보아하니 나쁜만이 아니었다. 다행이다.

다음날, 99개의 봉우리와 99개의 산굽이를 돌아 구화산의 김교각 스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고배경대古拜經臺는 스님께서 49일 화엄경 독경을 하신 곳이라고 하는데 돌위에 새겨진 스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발자국이 보통 사람의 크기가 아니다. 스님께서 거구이셨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커졌거나 추측할 따름이다. 계단을 따라 30분 가량 오르면 구화산의 제2봉인 천대봉의 천대사이다. 천대사는 스님께서 수행하셨다는 동굴인 지장고동地藏古洞이 있어서 세워진 절이라고 한다. 숨이 차고 다리가 저려오는 계단길에 가스통이며 벽돌 등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삼보일



배를 하는 젊은 중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중국불교에 이러한 신심이 있었나 잠깐 놀라왔다.

구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역시 육신보전이다. 김교각 스님의 진신, 육신불을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3년 후 꺼내어 본 육신은 살아 계신 그대로 피부까지 말랑말랑하였다고 한다. 직접 친견할 수는 없으며, 탑 안에 모시고 전각을 세운 밖에서 참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현관은 월신보전月身寶殿이라고 되어 있었다. 육신의 고기 肉자 쓰는 것을 피하여 육달월의 月자로 하여 2004년에 장쩌민 주석이 쓴 글씨라고 한다. 육신보전의 안내관을 비롯한 구화산의 모든 건물은 한글과 중문이 함께 병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신라의 위대한 스님이 배운 덕화이다.

구화산에는 김교각 스님뿐 아니라 육신불이 많다고 한다. 대략 20존상이 있으며, 그 중에 9존상은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던 백세궁에서도 126세에 열반하신 무하 스님의 개금된 육신불을 직접 친견할 수 있었다. 현지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육신불은 산불이 나자 손 모양을 바꾸어서 절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체투지하는 사람들과 참배객들이 많고 곳곳에서 불사가 진행 중이었다. 금빛 찬란한 오백나한님을 보며 개금하기 전의 옛 정취를 아쉬워하는 한 스님의 마음처럼 관광화 개발로 인한 우려의 마음과 오체투지하는 신심있는 불자들의 모습에 반가운, 두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김교각 스님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던 구화산 순례일정에 몸은 녹초가 되었고, 계단을 많이 오른 탓에 다리근육은 육신거렸다. 그러나, 기분 좋은 피로감이다.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계신 구순을 앞둔 회주스님을 생각하면 차마, 감히 고단하다는 말을 뱉을 수조차 없다. 대중 모두가 그런 큰 어른의 모습에 감탄하고 감동할 뿐이다.



영산대불 그리고 증원사 관세음보살님

자사다기로 유명한 의흥을 거쳐 운하의 도시이며, 태호리는 거대한 담수호가 있는 무석에 도착하였다. 무석에 온 이유는 상부선사의 영산대불을 친견하기 위해서이다. 상부선사는 현장 스님, 규기 스님과 관련하여 중국 법상종의 본사이기도 하다. 1994년 사찰 복원 후 소영산에 대불을 복원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였다. 대불의 총길이는 101.5미터이며, 좌대를 뺀 부처님은 88미터로 700톤의 동판 1570장을 땀질로

연결하여 그 뿔길길이만 30킬로미터라고 한다. 대불에 올라 부처님 엄지발톱 하나에 손을 모두 올리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역시 예상대로 대륙의 규모는 입이 벌어질 만 하다.

문화공원 안에는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 발자국 탁본과 아소카 석주, 구룡관육상 등을 조성해 놓았으며, 갖가지 모습의 개구쟁이 동자상을 품고 있는 넉넉한 포대화상이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였다. 공원 내에 있는 범궁전은 2009년 불교포럼 회향을 위해 여성 건축가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밖에서도 이질적인 느낌이었는데, 내부를 들어서니 마치 거대한 성당에 온 듯한 성스러운 분위기로써 역시 이색적이었다. 궁전 중앙에서 법화경 견보탑품의 종지용출이 재현되었다. 반야심경의 독경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탑이 솟아나는 장엄한 광경을 보며, 이 밖에도 곳곳에서 관람하였던 소위 '쇼'라고 이름 붙여진 화려한 불거리들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진정한 '장엄구'가 되어 주기를 발원하였다.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한 나에게, 귀국하는 날 참배한 소주의 중원사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이 마음 그득해지는 도량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이 마침 중국 3대 관음절의 하나인 음력 9월 19일 관세음보살님 출가일이었다. 작은 체구에 커다란 기둥을 어깨에 메고 절로 향하는 사람이 보인다. 가이드분의 말인즉, 어깨에 멘 기둥은 한국 돈 70만원 상당의 향이라고 한다. '저렇게 큰 향을 어찌 피우려나...' 하는 의문과 함께 짙마른 몸집에 신심인지 과욕인지 모를 그 중국인의 마음이 웬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509년 양무제가 창건했다는 중원사는, 2003년 복원되어 양성호에 관음대각을 짓고 동 88톤으로 33미터의 관음상을 모셔놓았다. 12층 높이의 목탑형식의 누각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단을 따라 한 층씩 오르며 관음상을 참배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누각 3층에 오르면, 이보다 더 원만할 수 없는 관세음보살님 상호를 입술, 콧구멍까지 세밀하게 친견할 수 있다. 중국 노보살님들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환희용약歡喜踊躍... 관세음보살님의 은근한 미소와 노보살님의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아득한 불국도를 떠올리게 한다.

중원사에도 승가대학이 있었다. 4년 과정의 승가대학 대중은 현재 120명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을 맞이해 준 중원사 비구스님은 한국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을 극찬하면서, 중원사에서 집필된 『경덕전등록』의 조박초 거사 필사본을 회주스님께 선물하여 주었다. 회주스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선물을 잊지 않으셨으며, 빼놓지 않고 참배하는 도량 곳곳에서 식물들을 채취하셨다. 삼장원 전시실의 식물앨범이 몇 장 더 늘 어날 것이다.

一花一木皆是景 一言一行要文明

꽃 하나 나무 하나가 모두 풍경이 되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문화를 만들어간다

구화산 등산로에 꽃혀 있던 안내글귀가 인상적으로 남아 나에게 법문이 되었다. 돌아와 본 운문사 도량에는 언제나처럼 대중스님들이 한 걸음씩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도 다시 그 풍경 속으로 가만히 들어간다. 순례를 다녀온 이의 언행 하나하나에 순례길의 아름다운 여운이 묻어나 도량을 안온하게 장엄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20년 복을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대신 누리고 온 것이라고 하신 회주스님의 말씀처럼, 너무 과분한 복을 누리고 온 순례자의 소박한 보은일 것이라고 여기며... 🍀

염불의 대중화와 포교에 관한 고찰 2

범성 / 사집과

- 목 차
1. 서론
 2. 염불의 정의
 3. 염불의 역사
 4. 염불 수행법
 5. 염불의 공덕
 6. 염불을 통한 포교
 7. 결어

3) 구품염불 수행법

염불수행의 일과日課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 품으로 나누는 9품염불이 있는데, 이를 표로 도식화하였다.

9품	아미타경	염 불	예 배
상품상생	10권	60,000번	49회
상품중생	5권	50,000번	48회
상품하생	3권	30,000번	47회
중품상생	2권	20,000번	46회
중품중생	1권	10,000번	45회
중품하생	1권	9,000번	44회
하품상생	1권	8,000번	43회
하품중생	1권	4,000번	42회
하품하생	1권	2,000번	41회

이와 같은 9품염불 중 무엇을 택하여 염불하였는가에 따라 사후에 극락의 9품연화대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난다고 보고 있다.

4) 즉심염불, 사리쌍수염불, 전수염불 수행법

중요한 염불법으로 즉심염불卽心念佛, 사리쌍수염불事理雙修念佛, 전수염불專修念佛이 있다.

즉심염불은 마음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것이므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아미타 부처님도 나의 심불心佛에 불과하다는 염불관이다. 즉,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불체佛體이지만 무명無明의 번뇌가 덮여서 나타나지 못 하는 것일 뿐이며, 나타나지 못 하는 것을 10만억 국토의 서방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심불心佛의 입장에서 내 몸이 곧 정토이며 내 마음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관하여 자기 마음 속의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즉심즉불卽心卽佛사상에 입각한 염불법이다.

사리쌍수염불은 이치(理)와 현상(事)을 함께 닦는 염불이다. 여기서 현상을 닦는다는 것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이리를 닦는 것은 불신佛身を 관하는 것이다. 곧 입으로 부처님의 명

호를 외우고 마음으로 관찰하여 쌍으로 묶는 염불법이다.

전수염불은 염불의 가지가지 방편을 버리고 오직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는 청명염불이다. 이 전수염불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순응하여 정도에 왕생하는 정정업염불正定業念佛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염불법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5. 염불의 공덕

염불을 권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염불하는 자에게 배풀어지는 각종 이익이 등장한다. 이 현세에서 모든 재난이 소멸되고 병이 없어지며 수명이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경사스러운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에 임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친히 서방 극락세계에 인도해 주며, 부처님을 뵈고 법을 들으며 영원히 즐거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염불하는 자에게는 5종의 수승한 인연이 있다. 첫째로는 일체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고, 둘째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호념護念을 받으며, 셋째는 눈앞에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넷째는 정도에 왕생하며, 다섯째는 왕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 경전에서는 극락왕생과 성불 같은 염불의 궁극적인 공덕 외에도 갖가지 현세적인 공덕에 대해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도경 스님과 선도 대사가 함께 저술한 『염불경』은 염불하는 공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담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선도 대사의 「염불집」이다.

선도 대사는 23가지의 염불 공덕을 기술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분류해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공덕이 무량하다.
- ② 불보살님과 신중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 ③ 제불보살이 증명하고 가피를 주신다.

- ④ 죄업이 소멸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 ⑤ 의식衣食이 구족되어 삶이 풍족해진다.
- ⑥ 몸에 병이 사라지고 외모가 아름다워진다.
- ⑦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 ⑧ 참다운 지혜가 생겨나 성불한다.

특히 『업보차별경』, 『대집경』, 『대승장엄론』에서 모두 큰 소리로 염불하는 고성 염불을 하면 열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잠이 오는 것을 쫓아버리고, 두 번째로 수행 중에 나타나는 장애인 천마天魔가 두려워하며, 세 번째로 염불소리가 시방에 울려 퍼지고, 네 번째로 지옥·아귀·축생의 고통을 쉬게 하며 다섯 번째로 염불 외의 잡음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염불하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고, 일곱 번째로 용맹정진이 되며, 여덟 번째로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아홉 번째로 삼매가 앞에 나타나며, 열 번째로 서방정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성염불은 범부가 믿음을 성취하고 생사해탈하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6. 염불을 통한 포교

1) 염불의 일상화, 생활화와 대중화

① 춤과 노래

신라시대 원효 스님은 날날이 풀어 쉽게 일러 주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친춘만락을 두루 유행하고 박을 손에 들고 노래하며 춤추며 교화하였다. 민중에게 방편으로써 노래와 춤으로써 부처님의 명호를 가르친 것이다.

② 대만 성운 대사의 ‘인간불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염불로써 민심을 모으고 염불의 대중화로서 불교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킨 성운 대사가 있다.

성운 대사는 인간불교의 제창자로서 대만불교의 살아 있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불교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여 현대사회를 인간정도로 변화시키는 데 공헌한 분이다. 1949년 봄에 대만으로 망명했으며 1953년 의란에서 염불회를 조직해 불교 포교의 기초를 마련했다. 1967년 인간불교를 종풍으로 '불광산사'를 창건하고, 불교문화·교육·자선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현해야 생활불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녹아서 구현될 때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스님은 본인의 염불수행 경험을 토대로 포교를 하였고, 불광산사 창건시 대만 사회 염불이 가장 성행하였다. 포교단 합창단 청년단 아동반 등을 개설하고, 의란염불회를 조직하여 전국으로 퍼져서 포교에 힘쓰고 있다.

성운 대사는 대만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렸고, 대중과 같이하는 불교, 쉬운 불교를 외치며 전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③ 염불의 한글화

'노는 입에 염불한다'라는 속담도 있듯, 이와 같이 염불은 승속을 이어주고 대중에게 불법을 친근하게 전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자 수업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 된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염불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는 대중을 위하여 한글 염불을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행자 교육시에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 한글 칠정례, 한글 『이산연선사발원문』 등 한글로 된 경으로 독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독송하며, 그 호칭 또한 '한글'에서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운문사승가대학에서도 저녁 예불시에는 한글로 된 『오분향례』와 『팔정례』, 『반야심경』을 독송하여 전통을 고수하는 가운데 현대화에 발맞추어나가고 있다.

한글화한 염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발음이 쉽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물론 한자가 가지는 그 뜻을 한글로, 단 한 줄만으로는 완벽하게 해석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글로 그 뜻을 고착화시키면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고정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불문과 예식을 한글화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④ 염불의 창작화

전통염불을 고수하던 시대에는 염불 자체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스님들만이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고유함을 지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의 방식들을 탈피한 새로운 장르의 염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첫 번째 예로써 반야심경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1인 1휴대전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벨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에 불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휴대전화 벨소리가 있었다.

독경 소리에 맞춰서 울리는 목탁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당이를 들썩이게 할 만큼 신나는 리듬의 반야심경이 흘러나왔고, 당시 염불은 연세가 지긋한 재가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의아해하기 보다는 재미있어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평창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번째 예로써는 염불대회 개최라고 할 수 있겠다.

시대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 발 맞춰서 2014년에 최초로 학인스님들의 염불시연대회가 열렸다.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염불을 생활화해서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염불시연대회를 통해 각종 불교의례 의식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시켜 전통불교의례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주최측의 취지가 있었다.

이렇듯 창작 염불이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염불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바

꿔주고, 이러한 인식이 불교포교에 힘을 보태기 때문일 것이다.

7. 결어

본 논문에서는 염불의 기초적인 개념 정리 및 염불의 일반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염불의 대중화와 그에 따른 포교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로 위 논문에서 다루지는 염불의 역사와 그 종류는 염불이 가지는 광대함에 비해 일부만 일瞥임을 밝히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염불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민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행임을 알 수 있었다. 승속이 함께하는 염불. 이와 같이 염불은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민중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전통 염불의 장엄함도 고이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승가의 문화유산이지만, 염불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변화되고 창조되어가는 모습 또한 불교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열린 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신심을 잃어가는 불자들에게 한 줄기의 새로운 빛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

<참고문헌>

- 李太元, 『念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2003)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 『염불수행입문』, 조계종출판사(2008)
- 정목, 『한국인의 염불 수행과 원효스님』, 하늘북(2006)

이번 호 선배탐방에서는 현재 운문사 총동문회장이며 한국명상상담학회 이사이신 22회 동진 스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회주스님 생신날이어서 운문사에 직접 오신 스님을 운문사 약아계에서 뵈 수 있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명상을 하라

진오下 / 사교과

반갑습니다. 동문회장 스님! 회장스님께서서는 현재 의정부 총지사 주지이시면서 명상센터 센터장이시고 명상상담사를 길러내는 책임 교수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상을 하게 된 계기는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불안한 감정이 내 삶에 투입되면서부터예요. 그때는 절에서의 생활과 석사과정을 공부하느라 하루하루 바빠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쉽게 화를 내곤 하였지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목표의식과 관계가 있어요. 과거에 얽매어 살면 분노를 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죠. 이때, 마침 명상을 만나게 되었고, 박사과정으로 명상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걷기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서서 하는 명상, 누워서 하는 명상 등 여러 가지 명상을 배웠어요. 명상을 하면서 분노가 사라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지금은 깨어 있는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요.

명상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회의 여러 곳에서 강연을 요청해 왔어요.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축구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일반인으로는 절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시간에 명상을 하지요. 호흡의 8단계를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신도들과 함께 명상을 해요. 스님들 대상으로는 해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도반스님들이 오면 명상과 관련된 질문지를 가지고 고민이나 힘든 점을 이야기해보면 자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하지요. ㅎ

명상과 참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참선은 화두를 가지고 있고, 명상은 사띠(sati), 사마타(samatha), 위파사나(vipassanā)로 구성 되어 있지요. 첫째 사띠(sati)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기억력, 주의집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 사마타(samatha)는 고요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한 부류나 마찬가지로예요. 이것을 염습, 지止, 관觀이라고 해요. 사마타는 '그친다'의 의미가 아니고, 고요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죠. 위파사나(vipassanā)에서 위-(vi)는 '거리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순간 순간 자신이 하는,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참선은 화두를 가지고 참구해요. '이렇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라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죠. 명상 역시 염습, 지止, 관觀이에요.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는 이놈이 어떤 놈인가.'하고 물어보는, 이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스님들이 해외 명상센터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은 바라밀행의 밑바탕이 됩니다. 수행자는 어떤 경험과 체험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 파옥센터나 호주 명상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찬성이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인천천天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머리카락을 깎고, 수행을 하고, 계를 지키려고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자 해요. 여러분 역시 인천의 스승, 그렇다면, 인천의 스승은 가능한한 모든 경험을 섭렵해야 하고, 일체 대중과 삶을 함께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상과학에서 박문호 교수님은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아는 만큼만 그 지식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만약 자신이 쉰 한 자루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쉰 한 자루에 대해 알고 있는 그만큼 지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깨달은 자는 다 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면일 뿐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데,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는 창고에서 어떤 정보를 꺼내고 싶어도 정보가 없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아뢰야식에는 그 경험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지요. 아뢰야식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급할 때 그 경험이나 지식을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문호 교수님의 명상과 뇌과학에 공감해요. 수행자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만물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맹인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언덕과 같다고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듯이 신도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다 해봐야 하는 거죠.

절실한 포교는 저잣거리에서

수행자는 보통 시끄러운 도심보다는 조용한 산 속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수행자는 산보다는 시중으로 나와서 포교에 힘써야 하고,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해요. 그들과 나뉘야 하고 함께 해야 되죠. 그것이 현재 절실한 포교예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 명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립과 소외, 왕따와 같은 문제로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생기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가 종교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보듬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11월 16일에 한 그룹의 스님 10명이 길상사에서부터 청와대 앞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가서 장삼을 입고 걷기명상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거리의 행인들, 또 외국인들이 우리의 안행雁行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환희에 차 감격스러워했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절에서는 지은 죄를 참회하려 108배를 하듯이, 우리는 3000배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그러한 신심을 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승려로서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학인들이 할 수 있는 명상-호흡 8단계

앉아서, 서서, 누워서, 걸으면서 하는 명상 등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서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우울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호흡이에요. 1초에도 8만 4천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호흡으로 바로 돌아와서 호흡을 지켜보면 모든 잡념을 버릴 수 있고,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요.

호흡 8단계를 알려드리면, 첫째 앉는 자세예요. 귀는 어깨와 나란히 하고, 코 끝은 배꼽과 나란히 턱을 앞으로 잡아당기고, 어금니를 살짝 물고 혀는 입 천장에 붙인 후 살포시 눈을 감고 양 손은 무릎에 올리고, 다리는 기부좌를 하고 좌우로 흔들어서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요.

셋째로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알고 호흡의 자세가 편안해졌을 때 수식관을 해요. 수식관數息觀은 호흡의 숫자를 세는 것인데, 잠이 오지 않거나 산란한 마음이 들 때에도 효과가 좋아요. 들숨과 날숨을 6회 정도 합니다.

넷째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면서, 멈춤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들이쉬는 숨을 집중해서 들이쉬겠다 하면 나올 때는 놔두고, 아니면 내쉴 때가 편하면 날숨에서 집중을 하고 들숨은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해요.

여섯째는 호흡에 이름을 붙이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움퍽자를 많이 해요. ‘움~’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음성에서는 입을 다물고 ‘움~’ 하다보면 이 음성에 대중 소리도 들리고 고요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지요.

일곱째로는 미소호흡인데 자신이 미소를 지었을 때 최고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호흡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로 미소를 지어보아요. 그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미소를 지어서 호흡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편안한 호흡인데 앞에서 말한 7단계를 모두 버린 본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흡만 꾸준히 해도 두려움, 불안, 우울의 감정이 없어질 거예요.

어때요? 우리 후배 학인스님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나요?

모든 시간은 지금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는 이정표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만 사세요. 지금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더 바라지도 말고, 지금처럼만 사세요.

만나자마자 꼬옥 안아주시던 스님, 그 따뜻함으로 인해 모든 설명이 필요없어진 듯했습니다. 당신의 경험까지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면서 우리 시대 우리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짧은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 고단하고 지친 그들에게 우리 불교가 어떻게 위안이 되고 보듬어야 하는지 깊은 사유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 <정도마을> ①

지안 / 대교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이란 완전한 끝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뜻하는데, 그런 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소중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죽음을 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조차 터부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전에는 집 밖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객사로 여겨 생의 마지막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숨을 놓는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까지도 가족들의 품 안에서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후의 순간까지 병원에서 온갖 의학적인 처치를 다 쏟아 붓고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 물건처럼 순식간에 포장되어 급히 냉동실로 실려 나가는 처지가 됩니다. 생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 오늘날 호스피스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병원장 능행 스님이 처음 호스피스 병원 불사의 원력을 세운 것은 25년여 전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은 출가 후 사회 곳곳의 병원과 보호소 등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며 아픔을 덜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당시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이웃 종교의 성직자들이었고 스님이나 불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불자로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위독한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이웃 종교 성직자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임종 직전 개종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정작 필요한 곳에 자비의 빛을 비추어주지 못 하는 현실에 스님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톨릭계 병원에서 스님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덩수룩하지만 어딘가 남다른 느낌의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분은 평생을 승려로 살아오신 비구 노스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큰 병이 들어 결국은 이렇게 남의 병원에 입원해서 큰 십자가 밑에서 죽게 되었다며 한탄하시던 노스님은 능행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스님은 아직 젊고 큰 원력을 가진 분이니, 부디 스님들이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을 지어 달라’ 며 간절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Healing is Loving’, 자재요양병원

그렇게 심어진 의료불사의 원력은 충북 미원면의 작은 조립식 건물에 터 잡은 정토마을 호스피스 공동체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능행 스님은 그 후 15년간 전국을 누비며 탁발과 강연으로 모연활동을 하였습니다. 차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선잠을 자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료불사의 필요성과 불교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결코 몇몇 사람의 큰 도움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한 방울 한 방울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바닷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울산 울주군에 108병상으로 꾸려진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자재요양병원은 현재 125병상에 호스피스 10병상으로, 1층은 호스피스와 중환자 병동, 2층은 요양병동, 3층은 승가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행 스님의 원력에 따라 병원 내부는 전통 창살무늬와 만다라 천장 등으로 아름답게 설계되었고, 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힐링푸드’라고 부르는 환우들의 식사도 자랑거리입니다. 투병중인 분들이 먹을 음식이니 최대한 집밥처럼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상태와 식성을 고려하여 잡곡밥, 쌀밥, 죽 그리고 죽조차 드시기 힘든 분들을 위한 미음을 준비합니다. 반찬 또한 온전히 드시는 분, 다지거나 갈아서 드시는 분이 모두 달라서 일일이 따로 나누어 챙겨드리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병고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즐거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토마을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영적돌봄가들이 언제나 환우들 곁을 지키며 명상, 염불, 요가, 다도, 예술심리치유, 원예치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자재요양병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자원봉

사자들이 악기연주, 연극, 춤동작, 웃음치료, 미용, 목욕, 마사지, 식사수발 등 헌신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재요양병원은 뜻있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여, 봉사로 꽃피어난 아름다운 한 송이 연꽃과도 같습니다. ‘Healing is Loving’이라는 병원의 모토 아래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몸소 실천하려는 마음 따뜻한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불치·난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실천불교의 배움터, 마하보디교육원

이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해 능행 스님이 의료봉사 못지않게 중요한 무게를 두며 진행하는 일이 바로 ‘교육봉사’입니다. 2007년도에 정식으로 개원한 정토마을의 ‘마하보디교육원’은 ‘생명존중, 자비실천, 의식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처음 시작한 불교 호스피스 교육은 현재는 5박 6일 일정으로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진행하며, 이번 2019년 1월에 48기 교육생을 성공적으로 배출하였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은 몇 해 전부터 ‘생사의

장'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타인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스피스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토마을의 호스피스 교육은 자기돌봄과 자기치유에 더욱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깊이 성찰하여 나와 남을 용서하고 가슴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생사의 장을 통해 교육생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갑니다. 자기 안에 간혀 있던 틀을 깨고 자기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진정한 자비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닦아 익힌 것들은 곧 다시 병원 현장에서 환우들을 만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힘으로 환원합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과 마하보디교육원은 그렇게 돌이면서 하나인 공동체로 순환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전국비구니 복지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질병의 고통으로 수행 정진과 전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혜택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이 원활해져서 승가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수행자의 위의를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 지원대상

- 1)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스님, 사미니스님, 보문종 비구니스님
- 2) 비구니회비납부, 결계신고 필한 스님
- 3) 질병치료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스님

● 지원종류

- 1) 지원 금액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합니다.
- 2) 지원 금액의 한도 : 스님 한 분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3) 지원 제외 조건 : 오래 진료 의료비 제외, 비급여 항목은 제외합니다.
- 4) 의료기관 : 전국 모든 병 의원

● 문의사항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백천문화재단
 전화 : 02-3411-8103 / 팩스 02-3411-8108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www.kbiguni.org)에 신청

언제나 보살피기를 즐기고 견디는 법은 계명을 지니면
 모든 고통을 불행의 어둠이 온갖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엘로라 석굴



대 열반당



인도 순례기

진오상 / 대교과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고 2562년이 흐른 10월의 어느 날, 원범 교수스님의 인솔하에 운문사의 화엄 행자 스물여섯 명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델리(Delhi)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르나트(Sarnath)의 녹야원鹿野苑에서부터 쉬라바스티(Shravasti)의 기원정사祇園精舍까지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돌아본 뒤 산치(Sanchi)대탑, 아잔타(Ajanta) 그리고 엘로라(Allora)석굴까지 답사한 16일간의 여정이었다.

인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을 통해서였다. 똥 누고 오줌 싸는 소와 개들 옆에서 사람들은 세수를 하고, 죽은 자는 화장을 하는 갠지스강…….



다비탐을 돌며 - 우리도 부처님같이

돈을 구걸하고도 “당신들이 돈을 줌으로써 선행을 쌓게 되었으니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능글맞고 뻔뻔한 인도 사람들……. 약속 시간에 늦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언제나 “No problem!”을 외치는 여유로움…….

이것이 인도에 대하여 갖게 된 첫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가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출가 후 순례를 가야 한다고 하였을 때 오직 든 생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은 어떠한 느낌이 들까? 나도 그의 기운을 받으며 삼매에 들고 싶다’ 였다. 강원에서 經을 부지런히 본 것도 아니었지만, 한번도 선정에 들어보지 못 하고 망상만 일어났기에 걱정이 되곤 하였다.

그러던 내가 이번 순례를 통해 크게 느낀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부처님 성지 - 그곳에서의 환희심과 좌선의 경험’ 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삶 그리고 꿈’ 이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와라나시(Waranasi)의 보드가야(Bodhgaya; 成道地)에서 우리는 천수 경부터 108배와 석가모니 정근, 축원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다. 아침 햇살 사이로 반짝이는 보리수 잎들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도 따라 반짝거리는 것 같았고, 경쾌하게 지지귀는 새



보드가야에서의 좌선



보드가야 - 부처님 참배

소리가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신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는 노을 속에서 앉아 있었는데 웬지 알 수 없는 평온감이 감돌았고, 푸르른 잔디와 나무들의 색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무수한 세월 동안 축적된 분별에 의한 눈이 아닌 부처 본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떠한가?’

그 순간은 진실로 부처에게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고, 깊이 사유해 보는 시간이었다.

성지나 유적지를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버스에서 보내면서 창 밖을 통하여 인도인들의 삶 그리고 고품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평소에는 나의 고품에만 빠져서 ‘아프다’ 고 느껴왔지만, 나의 고품을 제대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인생은, 진정 괴로움이 그곳에 있었다.

인도 가운데에서도 주로 오지들을 돌아 다녀서인지 그들의 삶이 하나같이 쉬워 보이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피부색과 직업에 따라 귀천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 부처님이 입멸하신 지 25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분의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 가난한 나라에 부처님의 법법이 부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다.

1달러(인도 돈으로 약 60루피)를 얻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보다 구걸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른 몸에, 맨발로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쫓아가 구걸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들과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미안할 뿐이었다.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종교인 힌두교로 인하여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젓을 만들거나 새끼를 낳는 암소들은 집 마당에서 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수소들은 길가에 버려졌고, 주인 잃은 개들은 시장이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와 개들은 피부병에 걸려 있었는데 기생충들로 인하여 몹시 간지러운 듯 파르르 떨며 몸을 핥고 있었다.

불쌍하여 가슴이 조여 올 때 즈음, 불쌍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는 자각이 들었다. ‘내 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생충과 벌레들이 살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생로병사라는 벌레가 나를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는데 이것을 망각한 채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시주의 은혜를 무겁게 진 채, 제대로 공부하지 못 한다면 저 소와 개처럼 다시 태어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다.

길 위에서 바라본 인도인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얼굴,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라는데 참 다르구나, 참 달라졌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깊어졌다.

팔을 끌고 가는 마부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환화 같은 몸을 이끌고 도道を 향해서 나아간다.

가고 또 가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턱-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다.

고요하고 밝은 그 곳에서 더 이상 ‘나다, 녀다, 뭐다’ 할 분별의식, 정신작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 있는 한국 사찰, 천축선원에서 새벽 예불을 드릴 때 떠올랐던 이미지이다. 이 못난 수행자에게도 보이신 가피加被였으리라……

와라나시-사람들과 렉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먼지 투성이 길가에 누워 있던 문둥병 아저씨 부처님,

붓다가야에서 인형같이 가녀린 몸으로 아기 동생을 들쳐 안고 우리들 숙소까지 따라오며 구걸하던 어여쁜 소녀 부처님,

하루를 시작하는 붉은 태양 아래, “안녕” 하고 건넌 나의 인사에 달리던 길을 멈추고 따라와 애정 받고 싶어 하던 얼룩개 부처님,

보팔(Bhopal)역에서 만난 두 다리가 없던 젊은 총각 부처님,

내가 만난 이들이 안온하고 평화롭기를, 우리 모두가 부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



고단하고 고독한 삶, 그 길의 위안거리들

- 한 때는 나의 제자였던, 이제는 사문의 길을 걷는 스님에게 -

신규탁 / 연세대 철학과 교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자들의 졸업 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물론 철학과 학부만을 졸업해서 전공을 살려 취직할 곳은 흔하지 않다. 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학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런 나에게 큰 충격이었던 일이 있었다.

석사를 졸업한 한 여학생이 박사과정도 포기하고 출가를 한다는 것이다. 절 생활을 그래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극구 말렸다. 내가 잘 쓰는 말로 단호히 말렸다. “태도 안 되는 소리 말게.” 비구로 사는 것도 힘든데, 비구니로 산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수행자의 삶이 힘들어서 말렸던 것은 아니다. 그런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절 집안의 현실이 수행을 하기에 힘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중처소에도 마땅히 살 만한 곳도 그리 많지 않고, 그렇다고 어디 독살이 하는 절에 붙어살기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여성의 출가 여정은 더욱 그렇다. 세상살이에 고단함이 남달라 산으로 간 것도 아닌데, 주지스님 눈치 봐야 하고, 도반도 신경 써야 하고, 시주님들 돌봐야 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나, 잠을 제대로 자나. 남은 몰라도 내 제자가 그 길을 간다니, 나는 싫었다. 이기심이라 해도 좋다.

그래도 가시겠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길인데,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석양의 노을 진 저

속으로 홀로 걸어 숲으로 향하는 수행자의 뒷모습에는 웬지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다. 모두가 마음의 장난이니, 보는 사람이 스스로 지어가는 감상이겠지만.

이 나이 되다보니, 또 낙엽 진 계절이 되니, 눌러 있던 외로움은 일상으로 올라온다. 밝은 대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눌러둘 만했다. 그런데 이맘때처럼 긴긴 겨울밤은 눌러 있던 외로움은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나는 이런 외로움이 싫지는 않으니,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것들이 나에게에는 있기 때문이다. 세속에서 간해乾慧로 불교를 연구하는 길을 떨쳐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제자 되어 사문의 길을 가는, 한 때의 나의 제자에게 이 글을 보낸다.

세속에 있는 '처사 교수'의 속물이라 탓해도 좋지만, 세상을 좀더 많이 산 선배의 팔로 생각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것과 함께할 수 있어 좋다. 젊은 날에 익혀두었던 책 읽는 '기술훈'은 외로움을 달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방편이다. 직업상 한문으로 된 고전을 끼고 살아보니, 문장이나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고전 속의 필자와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중에서도 화엄학을 전공으로 삼아 이 분야가 직업이 되어 청량징관 국사의 글을 읽고 규봉종필 선사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 『전등록』을 읽어두고 『선문염송』을 읽어두었더니,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읽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책들에 쓰인 내용들은 작가들이 출가자이다 보니 자연, 도를 논하고 인생의 참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요즈음의 상업적 내지는 업무적 글쓰기와는 사뭇 다르다. 저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출가 사문의 길로 들어섰으니 형편껏 책 읽는 '기술훈'을 젊은 날에 익혀두면, 외롭고 고단한 이 길에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스님이 되신 내 제자여!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웠던 글 읽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손에 책을 놓지 마세요.

친한 벗이 있어서 좋다.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고 또 예의염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자성청정심'이라 해도 좋고, '본각진심'이라 해도 좋고, '공적영지'라 해도 좋다. 또는 선어록에서처럼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다. 인간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저마다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될 일을 알게 마련이다. 또 사문의 길을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훈습이 되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삶이란, 그렇게 정석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때로는 알면서도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출가자가 이터니 저러니 따지지 않고, 그저 내 편이 되어 보듬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친한 벗이

란 그런 벗이다.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 인생이 외롭지 않다. 마을을 떠나 숲에서 사는 수행자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잘못된 줄은 나도 안다. 그런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친구 말이다.

세속에서 한 때 제자였던, 그런데 이제는 인천의 스승되는 길을 가는 스님이시여!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아니 그런 좋은 친구로 거듭나세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어 좋다. 그중에선 운전을 할 수 있으니, 차를 몰고 훌쩍 홀로 길을 떠날 수 있어서 좋다. 한적한 길을 두어 시간 정도 달리면서 바람도 쏘이며 풍광을 마냥 바라볼 수 있으니 좋다. 젊은 시절에 꼭 운전을 배워두었으면 좋겠다. 출가자의 사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혹 누군가 그것을 사치라고 한다면, 평소에 공덕을 쌓아, 그 정도의 호사를 누릴 수 있게 살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승용차는 내가 마음먹는 대로 움직이고, 바깥 경치도 바뀌고, 때로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산천의 소식도 물어온다. 봄이면 봄 냄새를 물어오고, 여름이면 여름 냄새를 물어오고, 그렇게 하여 다시 겨울이면 겨울 냄새를 물어온다.

이와 더불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약간의 돈이 있으니 좋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용채 말고, 그냥 살짝 손에 꼬옥 쥐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니 좋다. 산에서 내려오신 친구 스님에게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손에 책 몇 권이랑 작은 봉투 드릴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아니 쓰지 않더라도, 그냥 현금이 좀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좋다.

수행의 길을 가는 스님. 무소의 뿔처럼 의롭게 가는 스님. 그 길은 외롭고 먼 길이니 혼자 즐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세요. 툭- 떨어버리고, 딱- 눈감고, 단월의 물자를 좀 쓰세요. 출가 자체가 그런 공덕을 누릴 몫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스님더러 호사스럽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이 계시니 더욱 좋다. 학문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불교도 넓은 범위에서 인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나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동일한 스승을 만났다. 40년 전에 봉선사에서 월운 강백을 뵈었고, 그 어른의 학문과 세계관을 흠모하여 따르고자 했다. 밤하늘의 못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돌 듯이, 나에게 그분은 북극성 같은 분이였다.

재가자와 출가자의 그런 스승 관계는 물론이고, 내게는 학문의 스승이었다. 불교는 크게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하고, 대승불교는 다시 상종相宗, 공종空宗, 성종性宗으로 분류한다. 한편 '상종'은 다시 '소승법상'과 '대승법상'으로 분류하는데, 지식의 원천이 의식 내부에 있다고 하는 유식계통의 교리 행상을 '대승법상'이라고 하고, 지식의 원천이 의식 밖에 실재한다고 하는 설일체유부의 교리 행상을 '소승법상'이라고 한다. 우리 스님은 그중에서 성종을 전공하시는 학승이다. 문장 해석에 급급한 '석사釋辭' 강사들은 쇠틸처럼 많지만 교상판석을 하는 '교판敎判' 강사는 기린의 뿔처럼 드물다. 우리 스님은 '석사'에 능하시고, '교판'에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이런 스승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하다. 외롭지 않다. 화엄 현담이나 원각 규봉대소를 펴놓고 있노라면, 이내 몸은 비록 분 냄새 풍기고 누린내 나는 속세에 있지만, 어느덧 선생님 앞에 책을 펴고 앉은 듯하여 외롭지 않다.

스님,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나섰으니 반드시 스승을 섬겨 살아야 합니다. 왜, 아침 중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통정법사장지는流通正法師長之愿' 바른 법을 유통시키시는 스승님, 이 염불로 은혜 갚게 하소서. 그런데 스님, 길으로 보면 스승이 제자를 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 제자였던, 이제는 인천의 스승이 되시는 스님. 스승을 잘 모셔야 합니다. 사부님은 외로운 길을 가는 인생의 밝은 햇불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니 세상은 겨울인가 보다. 저 멀리는 고봉산이 보이고, 방 안은 따뜻하다. 하얀 문종이 위에 먹물로 찍힌 글씨는 한 자 한 자 살아 움직이는 듯, 옛 사람의 생각을 들려준다. "명창정안 고교조심明窓淨案 古敎照心" 규봉 스님의 좌우명으로 기억합니다.

스님, 위에 쓴 잠언 정도는 해석 안 해도 읽으실 수 있게 되셨지요. <치문>에 좋은 글들이 참 많네요. 깊어가는 겨울밤, 깨끗한 책상 위에 부처님 말씀 펴놓고 앉으니 행복합니다. 수행의 길을 가는 인천의 스승들이여! 당신들이 저 푸른 산에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❷



신규탁 대학시절 월운 스님의 인도로 불교학에 입문하여 동경 대학대학원에서 화엄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운당 가리사 :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강백 문집>을 편집 간행했다. 원체 이름 특이하여 각종 검색창에 '신규탁'을 치면 그의 살림살이가 올라온다. ananda@yonsei.ac.kr

눈속의 龍梅

표어

즐거워라...
문안에 핀 매화
눈아래 붉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인대상 독후감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회원반 도원 스님의 독후감을 실습니다.

쇠북 소리, 세상을 울리다 - 『25+10=X』를 읽고

도원 / 대교과

“평소에 즐겨 듣는 법문이 있나요?”

“법륜 스님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있었던 강주스님의 돌발 질문이었다. 대부분 쉽고 명쾌한 법륜 스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다. 승속, 남녀노소를 막론한 현대인들의 고민 해결사 법륜 스님.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이란 단어의 사용 빈도도 낮고 경전 구절을 인용하는 일도 적지만, 그대로 제행무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것만 같다.

이 책의 주인공인 백용성 스님께서는 법륜 스님의 상사 노스님으로 세속의 가계도로 치면 중조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다. 믿거나 말거나 법륜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후신’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였다. 게다가 『25+10=X』라는 제목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책장을 펼쳐 보기에 충분했다.

용성 진종龍城震鐘 조사(이하 조사)의 삶은 그대로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근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3인의 민족대표들이 일제의 억압 앞에 무릎 꿇고 등을 돌릴 때도 오롯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일생을 사셨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제국이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신이 살아야 하며, 불교가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교 개혁을 선도하였다. 인연 있는 한 신도의 사랑채에서 시작한 포교당은 담장 너머로 기웃거릴 정도로 매우 활발히 운영되었다.

소설 『25+10=X』은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불교가 침투하여 불교마저도 교유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우리의 얼을 지키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민족지도자의 진면목을 재조명하였다.

시간을 거슬러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최초의 사건이란 무엇일까? 태몽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유감이지만 태몽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몽을 듣는 것을 좋아하여 몇 번이고 청하여 들곤 했던 기억이 난다. 잉태될 무렵의 꿈과 잉태된 아이를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 한국의 ‘태몽 문화’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독특한 현상이다. 영험하게도 비범한 인물치고 평범한 태몽을 가진 이는 드물다. 용성 조사의 아버지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눈썹이 하얀 고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 집에서 지혜의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 깨달음을 열어 후세에 이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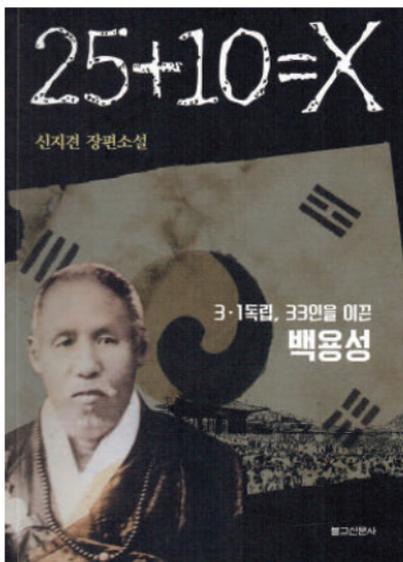
깜짝 놀라 아내 손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종 원년(1864)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고사리를 꺾는 어머니의 손목을 꼭 잡고 고사리가 피를 흘린다고 말하는 아이. 아버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잡은 물고기를 살며시 꺼내 도로 물에 놓아주던 아이. 조사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심결에 배어 나오는 자비심은 혹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수지하기 전부터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계체(戒體)가 아니었을까.

나 또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선배스님의 수행적 면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사의 출가 인연은 또다시 꿈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공자가 주역을 해설한 『계사전』 내용을 읽던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남쪽을 향해 걸었더니 꿈에서 본 암자, 부처님, 노승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화월 화상에게 가르침을 받는 조사의 태도가 짐짓 거만한 듯 그려진 것이 다소 승가의 정서에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묵직하게 느껴지는 구도 청신만큼은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초심자 시절 조사는 화월 화상의 소개로 해인사 큰절 방장스님께 갔다가 그만 돌아오고 만다.

화월 화상은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차라리 돼지를 길들이는 것보다 좀 안다는 자들을 길들이기가 더 어렵다.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개에게



도 불성이 있는가) 화두를 책 보고 배운 지식으로 꿰맞추는 듯한 대답을 내놓는 조사에게 내리는 스승의 약방문은 3,000배였다.

“사시, 조석예불로 맨날 절만 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3천 번을 하란 말씀입니까?”

잠시 이 대목에서 웃음을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승가에서 알음알이로 사고思考가 닿는 한에서 깨달음에 접근하는 것은 초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다. 어쩌면 조사의 태도가 다소 경솔하거나 말거나 스승에게 자신의 수행경지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이 당대 승가의 살아 있는 교육 풍토를 반영하는 듯했다. 옥빛 치맛자락을 펴러이는 조 대감댁 규수를 훌훌 지워버리고 일심으로 정진하는 제자로서의 패기와 스승의 약방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에게는 다소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화합을 위하여 대중의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야 한다는 핑계로 공석에서는 질문도 자제하고, 평소에는 독경보다는 조용히 사경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점에서 말이다.

그해 조사는 하안거 결제일에 해인사 큰절에서 화월 화상을 은사로 진중(震 울릴 진, 鐘 쇠북 소리 중)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새삼 한 사람의 스님을 키워내기 위한 어른스님들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가 생각하였다. 조사를 이끌어주었던 스승은 은사인 화월 화상뿐만이 아니었다. 화월 화상은 이듬해 동안거 해제일이 되어 극락암에 찾아온 해월 화상에게 진중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다.

“일념발기—念發起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력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세.”

그렇게 조사는 고운사 수월 화상에게 보내진다. 들은 풍월로 식견識見을 쓰는 버릇을 숨기지 못 하니 날벼락처럼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

“저기 수좌를 데리고 약사전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거든 문 밖에서 잠가버려라!”

이래해도 걱정이 뼈를 감싼 살가죽이 벗겨져 피가 줄줄 흐르는 무릎으로 해인사 극락보전에서 하루에 3천 번씩 절을 한 사람이다. 밖에서 문을 잠그게 놔둘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문을 잠가 스스로 간혀버리자.

그렇게 조사는 수월 화상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밤낮으로 주력에 집중한다.

이와 같이 조사가 격발하지 않았다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저 ‘창공의 메아리’였으리라. 시기적으로도 유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근대에 살았고, 어릴 때 『논어』를 배우던 유가적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깨달음을 향한 그의 마음, 정진력은 흔들림이 없이 깨끗했다. 조사의 수행하는 장면을 읽으면 허공이 공기로 가득 차 있듯이 그의 신심도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구도 과정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아름다움은 개념의 아름다움일 뿐 아름다움은 없다.

공간에는 혼잡한 세상을 떠나 고요히 산 속에 있는 스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스님이란 존재는 세상과 단절되어 산다고 보기 어렵다. 스님은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시주물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회향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존재 이유도 중생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도 다를 바 없다.

조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각고의 수행을 바탕으로 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회향하기 위해서 그 시대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독립운동 대표자 33인을 대표하여 옥살이를 반복하면서도 놓지 않은 독립운동의 끈.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찬불가를 만들고, 어려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민중을 향한 자비였다.

‘한 국토가 일체 국토에 들어가며…….’ 라고 반복되는 경구는 나의 아뢰야식의 바다에 도장처럼 남았다. 조사는 부인이 될 뻔했던 과거 조 대감댁 규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바로 화엄경이니라.”

마지막으로 제목 『 $25+10=X_0$ 』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답은 35이겠지만 조사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0의 비밀이다. 101010으로 이루어진 2진법의 세계에서 0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컴퓨터의 세계에서 0은 ‘하나의 신호’로 작용한다. 텅 빈 0이 하나의 신호,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다면 하나의 세계가 왜 텅 빈 것이 아닐까?

부끄럽게도 나 역시 알음알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말았다. 그러나 언제나 선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용성진종 조사와 화월 화상을 비롯한 모든 선배스님들을 지면으로 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아직 졸업을 앞두고 큰스님께 화두를 타지 못 했는데 책 속에서 조사께서 조 대감댁 규수에게 내린 화두를 나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

“금강경을 읽다보면 과거심 불가득過去心 不可得, 현재심 불가득現在心 不可得, 미래심 불가득未來心 不可得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긍정하고 봐도 어찌하여 얻을 수 없는지,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봐도 어찌하여 얻을 수 없는지 그것을 참구해 나한테 답을 가져오시오!” 🍀



몽중유 夢中遊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나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망도시종분양두 妄道始終分兩頭
동경춘도사년류 冬經春到似年流
시간장천하이상 試看長天何二相
부생자작몽중유 浮生自作夢中遊

- 학명鶴鳴 선사 

오백나한전 꽃밭에서 100일간의 수행

지선 / 사교과



아직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던 9월 초, 땀을 흘리면서 '제대성중' 정근을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을 맞이했습니다.

강원 입학 전부터 운문사 오백전 백일기도 부전 소임을 맡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도 높고 염불 오디션을 본다는 말에 포기했었는데, 다행히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당연히 오디션 또한 보지 않고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을 시작하는 백일기도 입재일! 사람들 앞에만 서면 소심해지는 성격 탓에 우황청심원까지 복용한 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황청심원의 효력이 미비했을까요? 마이크 너머 도량에 울리는 저의 목소리에서는 떨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후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법당 문을 열었는데 부처님과 좌우보처 보살님, 오백 아라한님의 몸에 색색깔의 동충하초가 만발한 꽃처럼 빈틈없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동충하초 꽃밭이라니! 틀림없는 길몽으로 '기도하는 백일 동안의 오백전은 꽃밭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백전 꽃밭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한 100일은 많은 양의 축원문이 대신 말해주듯 많은 이들의 염원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의 새벽을 빠짐없이 기도 드리셨던 두분의 보살님, 한 주도 쉬지 않고 목요일, 일요일에 운문사를 찾았던 보살님, 40년 동안 다니셨던 사리암을 아픈 다리 때문에 가지 못 하고 오백전으로 기도 드리러 오셨던 노보살님 등등 많은 불자님

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일념으로 간절히 제대성중을 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도반스님이 뒷밭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대성중 정근 소리가 들렸다면서 산천초목도 정근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남들보다 다소 큰 목소리가 100일 동안은 빛을 받았습니다.

오백나한 백일기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1978년 학인스님을 위해 처음 기도를 시작해서 40년간 사부대중의 원력을 이어받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40주년 특별 오백나한전 백일기도' 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 에 임했습니다.

'나한' 은 부처의 뜻에 따라 그의 신통력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중생에게 복덕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데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양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여 우리나라 사찰에는 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많이 있습니다.

오백나한의 기원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칠엽굴에 모여 아난 존자가 경을, 우바리 존자가 율을 암송하여 경과 율을 결집한 '1차 결집' 의 역사적 인물들이라는 설과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부처로 수기를 받으신 경전상의 성자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운문사 오백나한전은 나한님 한분 한분께 공양미를 올리는 오백미 공양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각각의 나한님께 공양미를 올림으로써 선근공덕을 쌓고, 원하는 바의 성취를 발원합니다.

그리고 오백전 하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백전 외벽의 '심우도' 벽화입니다. 선을 닦아 나아가는 우리의 본래면목을 소에 비유하여 소를 찾고 그것을 얻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일의 시간이 지난 후 스스로 알아차리진 못 하겠지만, 틀림없이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던 어른스님, 기도가 끝나고 오랜만의 힐링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던 불자님, 100일 기도 동안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다며 감사 기도를 드리러 오신 불자님들, 올려놓은 오백미를 먹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백전을 방문했던 참새들까지.

가볍지 않은 염원을 품었지만 결코 무겁거나 힘들지 않았던 행복한 100일이었습니다.

오백나한전 백일기도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어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미래의 운문인들에게 보내는 글

- 내 수행의 첫 번째 꽃자리, 운문사승가대학 -

진유 / 사미니과



안녕하십니까?

사미니계를 받고 어느 강원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후배스님들!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행복 수행의 지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미니계를 받고 강원을 결정하기까지 제가 겪은 과정과 치문 첫 철 동안은 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것을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출가 전부터 가고 싶은 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대중이 적은 곳이어서 전 마음이 다소 흔들렸습니다.

‘대중이 적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겠노?’ 싶다가도

‘대중이 적다고 못 배울게 또 뭐가 있노?’ 라는 나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전 결단을 내려서 은사스님께 조심스럽게 운문사로 가겠다고 말씀 드리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 부푼 꿈을 안고 운문사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강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걸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운통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인지 목련꽃 향기로 가득 찬 운문의 도량도 저에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봄철 동안 도반스님들과의 정은 두터워져서 ‘그냥 여기서 한번 이겨내 보자.’ 라는 결심도 해 봤지만 며칠만 지나면 또 새로운 난관에 부딪혀서 저는 또 피할 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봄철 첫 방학이 왔고,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에 법륜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살은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 하라' 곧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탁이 가면 목탁이 비추고, 죽비가 가면 죽비가 비추인다. 그리고 목탁이 사라지면 거울에도 잔영이 남지 않으며, 죽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인연이 오면 비추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 거기에 어떤 미련도 앙금도 없는 것이 거울이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문 봄철에 힘들어하면서 '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른 곳을 찾아 달아나려고 한 것도 마음을 내는 무심의 수련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의 번뇌도 매사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분별하는 습이 강해서 경계에 울고 웃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니 저의 치문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온문사의 도량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소임을 같이 사는 상반스님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상반스님들이 훌륭해보였습니다.^^

또한 온문사의 삶에 무엇보다 큰 힘은 온문사의 회주스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회주스님께선 지난 50여 년을 온문사에서 한결같이 즉사이진(卽事而眞),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을 몸소 실천 수행하십니다. 오늘도 온문(雲門)의 도량에서 많은 후학에게 주인공으로의 삶을 여실히 일깨워 주십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앗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곳이, 이곳 온문(雲門)의 도량입니다.

온문사에서는 이 과정을 온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살아 있는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수행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이 후 30년, 40년 평생 수행의 자량을 든든히 마련해 주는 꽃자리입니다.

우리 수행의 삶이 온문사 천년의 향기를 가진 처진 소나무와 꼭 같아지길 발원해 봅니다. 처진 소나무는 유유한 세월 아래에서 시린 한풍과 폭설, 어떠한 열악함에도 고고히 온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 기상은 온문사 천년의 나날을 여실히 담고 있고, 앞으로 후배스님이 이곳 온문사에서 4년을 탁마하시고 나가실 때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의 길에 들어 선 후배 스님!!

꼭 온문사로 오셔서 부처님 앞에서 당당히 최상승의 마음을 내는 첫 출발을 시작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

명행족明行足 - ‘다름을 인정하는 밝은 마음’

정현 / 사집과

운문사의 새벽예불시간, 108배를 통해 매일매일 부처님의 십대명호를 소리 높여 불러봅니다.

“지심귀명례~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우리는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십대명호가 갖고 있는 뜻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없이 존귀하시고, 공양받아 마땅하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밝은 행을 구족해 세상의 이치를 모두 통달하신 부처님. 각각의 명호에는 그 명호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십대명호 중 ‘명행족’은 지혜와 수행을 완성해 밝은 행을 구족하신 부처님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명행족에 대해 설하시길,

“명은 한량없는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말이고, 행은 발(脚足)이란 뜻이며, 선한 과보는 아늑 다라삼막삼보리를 말함이고, 발은 계율과 지혜를 이룸함이니, 계율과 지혜의 발을 의지하여 아늑 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므로 명행족이라 하느니라.”

또한 『불설십호경』에서는 “明明은 천안명天眼明·숙명명宿命明·누진명漏盡明을 말한다. 행족行足이란, 여래는 몸과 입과 뜻의 업을 만족하게 잘 닦아 바르고 참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큰 가사와 발우 등이 있더라도 자재하게 관조觀照하여 애착이 없으며, 스스로의 원력으로 일체의 행을 닦아 만족하게 한다. 이를 명행족이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명행족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명행족의明明은 밝다는 뜻입니다. 해는 양의 성질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주며 만물을 보듬는 따뜻한 빛을 내고, 달은 음의 성질로 만물을 길러주며 어둠을 밝히는 빛을 냅니다. 해와 달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며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명의 이치인 것입니다.



행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밝음으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행족입니다. 부처님의 밝음이 행을 동반할 때 비로소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제자인 제바달다가 자신을 살해하고 교단을 장악하려 악행을 여러 번 시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음으로 품으시고 항상 제바달다를 근심하셨습니다. 제바달다의 악행을 하늘 땅이 보다 못해 지진으로 땅을 갈라 그를 지옥에 떨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죽는 최후의 순간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며 진심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토록 부처님을 근심케 한 제바달다지만 오히려 범화경 제바달다품에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에 육바라밀, 사무량심, 삼십이상 팔십종호, 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외, 사섭법 등 여러 신통력과 도력을 구축했다고 말씀 하시면서 천왕여래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제바달다가 당신을 향해 보낸 시기와 질투를 원수와 미움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그를 품으시어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신 것입니다.

학교, 직장, 출가하여 대중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제바달다는 꼭 한 명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사라지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부정하는 순간 나에게는 그가 아닌 또다른 괴로운 존재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일이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행족이 되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처럼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명행족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때 자비로써 그를 품으면 비로소 밝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중생활을 하는 우리 스님들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인 것입니다. 상대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밝은 행을 실천하는 명행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행, 깊어가다

편집부



참된 나를 찾아

- 〈자경문〉을 읽고

상호 / 한문불전 대학원

처음 발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훌륭한 말씀 중에 나에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최후의 설법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수행자의 모든 품행과 게으름에 대해 많은 경책을 하셨다.

열반의 그날까지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올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중생의 그릇(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내렸는데, 한결같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깨어나라는 것이었다. 과거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 중 〈칠불 통계계〉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막혀 스스로에게 있는 참된 ‘나’를 찾아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강조하셨다.

고려시대 야운 스님이 쓰신 ‘자경문’은 항상 나로 하여금 수행의 바탕으로 삼게 한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을(내 안의 주인공) 대상으로 스스로 경책하라는 수행의 근본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 허물은 잘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를 바르게 보는 사람이면 남의 허물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의 허물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다. 이렇듯 나를 바로 보아 수행을 돕고,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의 반성을 돕는 <자경문>에서는 스스로 일깨우고 경계하는 내용을 열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삼가라.

둘째. 나의 재물을 아까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넷째. 善友는 가까이하고 사된 벗을 멀리하라.

다섯째. 삼경 외에는 잠을 허락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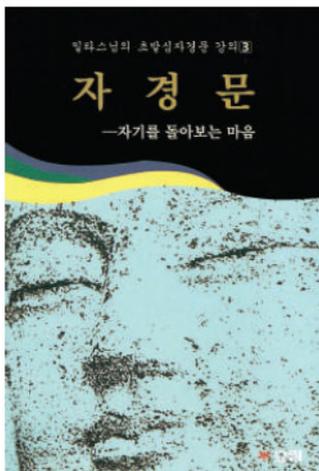
여섯째. 망령되어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일곱째. 재물과 색을 대하거든 반드시 정념으로 임하라.

여덟째. 세속 사람을 사귀어 미움을 받지 말라.

아홉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열째.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마음을 언제나 평등하게 가져라.



중국 선종의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심명>에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이라고 하였듯, 지극한 도를 이루고자 하면 밋다, 곱다, 좋다, 싫다, 맞다, 그르다, 취한다, 버린다 등의 평등하지 못한 간택심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이 상대적인 마음만 버리면 그대로 지극한 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자면 평등심을 기르며 많은 연습과 습관을 들여야 한다.

꾸준히 참선, 염불, 주력, 경전공부 등을 하면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어느 순간 경계가 끊어져 나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를 체험하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경문>의 마지막 부분 <논어술이장>에 나오는 말이다.

'인선이 먼 데 있으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인선이 스스로 따라온다'

'도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멀리한다.

내가 도를 구하고자 하면 도가 나를 따라 온다.'

우리가 지극히 깨달음을 찾아 궁구하면 깨달음이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온다고 했다. 야운 스님의 <자경문>은 확고한 '신심' 을 불러일으키는 간곡한 '글' 이어서 마음이 흩어지고 게으름이 날 때 나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된다. 🍀

화합하는 운문인

은 우주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가 화합상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화합은 완전한 원만圓滿함을 이룬다. 우주의 진리를 오롯이 보여주는 이 완전한 원만함은 그대로 하나의 원이다. 그래서 둥근 곡선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여실히 진리를 느끼게 하고, 어리석게 붙잡고 있는 무명의 나뭇잎들을 한순간에 날려 버린다.

지난해는 불교계 안팎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한 해였다. 안으로는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깊은 자괴감, 무책임 등을 불러일으켰고 밖으로는 이 시대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 불교에 대한 실망감, 질타 등 곱지 않은 시선에 휩싸였다.

이런 복잡한 마음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살행을 펼치는 더 많은 수행자들이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놓이는 한 해이기도 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불교는 본연의 정신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양 날개로 삼아 수행의 길 위에서 번득이는 지혜로 그 본체는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숲 속에서 살다 보니 계절의 흐름이 여실히 보인다. 그 작고 여린 옴들이 터서 점점 무성해지고 최고의 절정을 누린 뒤에 아름답게 물들며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요란한 소리도 없고 '이제 되었다.' 하고 쉬는 일도 없다. 다만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괴공의 매트릭스에서 신나게 한바탕 놀고 있을 뿐이다.

운문사 도량 입구에는 사천왕처럼 곳곳이 호법하고 있는 5백년 소나무가 있다. 그 안의 가지들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우렁차지만 등허리는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한 그루 나무는 앙상한 가지들이 모여 커다랗게 둥근, 하나의 이파리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 나무들이 모여 농선을 이루는데 그것은 부드럽기 한량없는 곡선으로 화합한다.

그뿐인가. 장군평 다실의 연못, 죽림현으로 향하는 극락교의 곡선, 하늘로 오를 듯한 비로전의 추녀끝, 금당을 지탱하는 기둥의 둥글둥글 나이

데, 오백전 오백나한님의 동글동글 지혜의 표정들. 도량 내 모든 것들이 둥근 곡선으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둥글다는 것은 화합을 의미한다.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이다. 굳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도 좋다. 있는 그대로 손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더 생동감 넘치는 둥근 곡선이 되니까.

우리 마음도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화합하여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온갖 차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음을 이루고 있다. 마치 대지大地처럼. 어찌면 온 우주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 또한 내가 분별을 내든 내지 않든, 온 우주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가 화합상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화합은 완전한 원만圓滿함을 이룬다. 우주의 실상을 오롯이 보여주는 이 완전한 원만함은 그대로 하나의 원이다. 그래서 둥근 곡선, 화합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여실히 진리를 느끼게 하고, 어리석게 붙잡고 있는 무명의 나뭇잎들을 한순간에 날려 버린다.

불교계가 안팎으로 잡음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 발전의 길로 굴러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정한 화합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픈 곳을 드러내고 직시해야만 그 아픔을 낮게 할 수 있다. 지난 한 해는 이러한 과정상의 한 매듭이었기를 바란다. 각 처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아우르고, 우리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그 매듭은 화합으로 풀리기를 기원한다.

운문사에서 날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순간순간 번뇌와의 불협화음이다. 작은 일부분에 집착하여,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옳지 않다며 가시를 곧추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화합의 시작이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 대면하는 용광로이고 헛노력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둥근 곡선으로 원만 구축하게 운문사에서 4년을 살면 화합의 힘을 어찌 닦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후에 혼자서 갈 수 있다.

숯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여러 숯이 함께 있어야만 빛과 열이 오래 간다.
공부하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해야
그 기운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만의 불로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 숯타니파타 ❀

운문소식



▲ 동안거 포살



▲ 상동 린포체 특별법문



▲ 제3회 법계문학상 시상식



▲ 교마평화도서관 개관식



▲ 사집반스님 자비참기도

- 11월 22일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 제사와 청풍료에서 겨울철 개학 공사가 있었습니다.
- 12월 1일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12월 6일 운산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동안거 포살이 대웅전에서 봉행 되었습니다. 포살 후에는 대학원스님과 화엄반스님의 졸업사건 촬영이 있었습니다.
- 12월 7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군법승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대지원 졸업법회로 교학부와 화엄반스님들이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 12월 16일 오후 2시 청풍료에서 티벳 삼동 린포체의 특별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17일 오후 1시 선열당에서 '제3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12월 18일 금당에서 회주스님 생신 상차림이 있었습니다. 각 처에서 활동하시는 동문회 선배스님들이 오셔서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 12월 19일 강주스님과 도감스님, 화엄반스님들이 대구 '제1자비의 집 노인 무료급식소'에 무료급식봉사를 다녀왔습니다.
- 12월 21일 3박 4일 동지휴강이 있었습니다. 사교반 스님들이 사중에 남아 ~ 24일 팔죽공양을 올렸습니다.
- 12월 23일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백일간의 수행' 기도회향을 하였고, 대웅전에서 운산 주지스님의 회향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27일 졸업을 앞둔 화엄반스님들이 경산에 있는 운문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 12월 28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오후 2시 교학부에서 '교마평화도서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회주스님을 비롯한 모든 대중의 송년 율놀이가 있었습니다. 비로전에서 새해맞이 철야정진기도가 있었습니다.
- 1월 1일 대웅전에서 새벽예불로 향수해례와 새해 떡국마지를 올렸습니다.
- 1월 3일 겨울철 중간 죽비 전달이 있었습니다.
- 1월 5일 사집반 스님들이 경반 무장무애 발원 '자비참기도'를 비로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회향하였습니다.
- 1월 10일 화엄반스님 건강검진이 9시 30분부터 전향각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선열당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주선회 교수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월 12일 부처님 성도제일 맞이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3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성도제일 팔상성도 새벽예불을 올렸습니다.
- 1월 14일 화엄반 환송회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5일 대웅전에서 제7회 한문불전대학원과 제55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 1월 24일 ~ 25일 신입생 예비소집 및 면접이 있습니다.
- 1월 27일 ~ 3월 9일 42일간의 겨울철 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정용배 • 오학균 • 하옥희 • 이경영 • 김영자 • 최희영 • 신현섭 • 이병석
• 삼신사 • 이정숙 • 최종인 • 정해옥 • 부유부동산 • 이미정 • 이정숙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미소 하나,
좋은 말 한 마디
이는 모두가
선한 인연 맺는
큰 보시

願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살피고 살피
그 願을 성취할 수 있는 원력을 기르고
입과 몸과 생각이 닿는 곳에
능히 자유자재로워
그 願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雲門寺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317호, 니말여초, 돌, 상높이 83cm 무릎폭 81cm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존자님 기도를 통해 기쁨을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19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 집 기 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 형 방 법 시험, 면접
예비소집일 2019년 1월 24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 형 일 시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범계 명성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9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울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 형 일 시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원감 일진 · 주지 운산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47호·2019년 1월 24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성경 / 편집위원·자운, 현근, 무덕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성경(행복선정참나무禪定) / 삽화·무덕, 서림 편집디자인·Design MARU (디자인 마루) (053)426-3395